

smart is sexy

Orbi.kr

지문을 잘 읽어야
문제가 잘 풀린다



이윤범 지음

수능 기출 지문을 읽으며 배우는

비문학 공부법 핸드북



꾸미지 않아도 멋있고 예쁘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는 10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있는 20대와 30대,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1부 왜 비문학 읽기 능력이 필요한가? · 15

2부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 · 27

- 1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준비 :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글을 읽을 것인가? · 29
- ① “문제풀이”만을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되는 이유 · 29
 - ② 어떤 글을 읽어야 하는가? : 공인된 기출시험의 지문 · 30
 - ③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속독과 정독 · 31

- 2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공식 : 읽기 능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성되는가? · 33
- ① 읽기 능력 공식 · 33
 - ② 단어 능력 · 34
 - ③ 추론 능력 · 35
 - ④ 구성 능력 · 37
 - 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 39

3장 첫 번째 황금열쇠 : 목적 · 41

- ① 글을 쓴다는 행위의 원인 · 41
- ② 글쓴이(출제자)의 입장 · 43
- ③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글 · 44
- ④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 46

4장 두 번째 황금열쇠 : 구조 · 47

- ① 구조 이해의 중요성 · 47
- ② 구조를 파악할 때의 주의점 · 48
- ③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 50

5장 세 번째 황금열쇠 : 주제 · 54

- ① 주제의 의미 · 54
- ② 설명하는 글의 주제 · 55
- ③ 설득하는 글의 주제 · 57
- ④ 주제를 찾는 연습 · 59

6장 번외편 : 비문학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의 상관관계 · 63

- ①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의 연계성 · 63
- ② 비문학 글을 잘 쓰기 위한 연습 · 64

3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 · 67

Ⅰ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는 방법 · 69

1장 '22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74

- ① '22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3번 · 74
- ② '22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4~9번 · 82
- ③ '22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0~13번 · 94
- ④ '22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4~17번 · 103

2장 '21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10

- ①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1번 · 110
- ②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6~30번 · 122
- ③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4~37번 · 133

3장 '20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43

- ①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143
- ②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6~29번 · 152
- ③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7~42번 · 159

4장 '19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69

- ①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169
- ②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7~32번 • 178
- ③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9~42번 • 187

5장 '18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96

- ①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19번 • 196
- ②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7~32번 • 203
- ③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8~42번 • 214

6장 '17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223

- ①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223
- ②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3~36번 • 233
- ③ '17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7~42번 • 242

4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다양한 응용 · 253

1장 수능시험 문학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255

- ①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3~35번 (시) · 255
- ②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0~32번 (소설) · 266

2장 수능시험 영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276

- ① '20년도 수능 영어 홀수형 41~42번 · 276

3장 정부 발간 정책자료(보고서)에 적용하기 · 283

- ① 「2020 관광기업 지원 정책」(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83

5부 부록 :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간략한 조언 · 299

1부

왜 비문학 읽기 능력이 필요한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 대부분이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하는 행위로서 학습, 업무, 취미 등 많은 일의 기본이 된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읽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사전에 존재하는 정보를 “읽어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교 입시를 좌우하는 수능시험에는 국어영역이 있고, 행정고시 및 외교관을 선발하는 1차 시험(PSAT)에는 언어논리영역이 있으며, 법학적성시험(LEET)의 언어이해영역과 많은 기업의 인적성검사에 서도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흔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크게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글을 분류했다. 문학은 시, 소설, 희곡 등이고, 비문학은 설명문, 논설문, 연설문 등이라고 배웠다.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무언가를 읽는 과정을 통한 학습은 계속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접하는 글은 비문학에 속하는 글이 많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작성하거나,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듣고 읽고

쓰는 글은 대부분 비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문학을 읽는 능력”은 비단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회사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따로 배우지 않는 것처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문학을 읽고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경우 총 45문제 중 대략 20문제 전후가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문제 푸는 기술”을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각종 참고서나 학원,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 국어영역 강사 등 전문가가 수험생 입장이 되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지켜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풀이법을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싶다가도,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들처럼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이다. 매우 상투적인 비유를 들자면, 이는 아주 능숙한 낚시꾼이 낚시하는 장면을 옆에서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낚시 초보인 나도 혼자 낚시하러 가서 그 기술을 흉내내 봐야지’ 하는 격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물론 중요하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더욱이 문제를 푸는 기술 또한 익혀야 한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숙련된 사람들의 고기 잡는 기술이 본인

의 기술이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기에,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이 책에서는 고기를 잡는 방법에서 더욱 근원으로 돌아가 ‘고기를 키우는 방법’부터 알려주고자 한다. 문제를 푸는 기술만 능숙한 사람은 결국 변수에 휘둘리기 쉽다. 그날따라 매우 어려운 지문 혹은 길이가 긴 지문이 출제되거나, 당일엔 시간 배분을 잘못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기술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낚시터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날따라 고기가 없거나 악천후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은 낚시꾼이라도 도리가 없겠지만, 이런 때를 대비하여 차분히 고기를 키우는 방법을 익혀온 사람이라면 걱정이 없다. 키운 고기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렇듯 이 책의 목적은 독자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수능시험의 기출지문도 각각 한편의 완결된 글로서 마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책의 크기도 시험지 크기가 아닌 일반적인 책의 크기를 선택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수험서라기보다는(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소설책이나 자기개발서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 책을 읽은 후 독자들이 새로운 비문학 글을 접할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수능시험 등에 문제로 출제된 지문은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지문을 효과적으로 잘 읽기만 해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읽고 상세하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배경지식까지 검

색할 수 있다면 글을 꼼꼼히 분석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예를 들어 시험장에서 처음 본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길지 않은 제한 시간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실 이 책에 서술된 상당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실천하지 않았거나 실제 글을 읽는 데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황금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글의 “목적”, “구조”,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대부분의 비문학 글은 목적과 구조,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황금열쇠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황금열쇠를 실제 비문학 글에 적용하여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비문학의 이해를 위한 황금열쇠가 문학 지문이나 외국어 지문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은 문제 푸는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비문학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어 독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문학을 잘 읽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문제를 푸는 기술은 매우 쉽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수능 시험 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시험 및 법학적성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 기업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분야 모두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자신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문학 지문 중 가장 잘 쓴 글,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글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습을 위한 좋은 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존에 수능시험 등 공인된 시험에 출제되었던 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어렵고 생소한 글일수록 오히려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인 “목적”, “구조”,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의 틀을 활용하여 글을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이해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읽는 능력이 쓰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수의 노래를 계속 따라부르는 법을 연습하다보면 그 속에서 노래를 잘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잘 쓰여진 글을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글을 잘 읽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짧은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하고 주로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직관적이고 단편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긴 글을 읽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짐은 물론이고,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방식

으로 사고하며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비문학을 읽는 능력”이 야말로 다른 배움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기술을 배울 때조차도 초반에는 설명을 읽으면서 원리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어나 언어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부터 교육 및 학습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을지를 늘 고민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거나 조언해주었다. 시중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만,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 않다. 굳이 비싼 학원 강의를 듣거나 족집게 강사를 만나지 않아도 잘 읽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국어영역은 물론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이 감사하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어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글을 파악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은 잊고 있었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는 것에만 몰두

하다가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 훈련을 소홀히 한 채 타격기술만을 연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보다 중요한 물음은 바로 “어떻게 읽느냐?”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길이면 서 순발력을 기르고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글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매우 많은 책을 읽어서 스스로 잘 읽는 능력을 깨우친 사람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방법은 있다. 짧은 분량의 글을 몇 편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하며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점차 읽기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사나 다른 뛰어난 친구들이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없다. 독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읽기 능력을 키우기를 강력히 권한다.



WARNING

이 책은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을 비롯하여, 수능 시험 문학 기출 지문은 물론 영어 지문, 정부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의 읽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직접적으로 “시험점수”를 높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험점수란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경우 뒤따라오는 결과라고 보기에 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에 기술된 읽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법은 보다 근본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전반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키기에는 적합하지만, 시험점수를 목표로 하는 독자들이라면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익숙해진 후에 시중에 다수 판매되는 수험용 문제집 등을 풀어보기를 권한다. 당장 점수를 높이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읽기 능력의 기초를 다진다면, 튼튼한 기본체력을 바탕으로 이를 문제풀이에도 마음껏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책은 “핸드북(handbook)”이라는 명칭처럼 독자 여러분들이 손에 자주 지니고, 이동할 때나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경우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급한 마음으로 욕심을 앞세우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이 책을 가까이 할 때 책은 많은 것을 이야기 해 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이 일반적인 수험서처럼 한 번 읽고 문제를 맞춘 후 잊혀지는 일회용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되뇌이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해 주는, 독자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2부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





2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공식

- 읽기 능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성되는가?

① 읽기 능력 공식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마치 축구선수의 능력을 체력, 테크닉, 지능, 순발력, 지구력으로 이루어진 5각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읽기 능력 역시 세부요소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능력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읽기 능력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text{읽기 능력} = \text{단어 능력} + \text{추론 능력} + \text{구성 능력}$$

즉, 읽기 능력은 위 세 가지 능력의 합이며, 각각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각각의 능력을 어느 시기에 길러야 하는지, 이를 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② 단어 능력

첫 번째로 단어 능력은 말 그대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말하며, 글을 읽을 때 이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사전에 얼마나 가진 채로 읽느냐와 연결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회사원의 읽기 능력을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평균적으로 후자로 갈수록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비례하여 다양한 지식이 축적되어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에 출제된 과학 관련 지문의 단어들이 초등학생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과학을 비롯한 다른 배경지식이 점점 축적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릴 때보다 많은 과학 관련 단어를 알게 되어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시험장에 가서 출제된 지문을 마주할 때 지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단어 능력이다. 지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일단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면 읽는 동안에도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이지만 본인은 관심이 많아 예전부터 해당 분야를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다면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지문을 만날 경우 추가적으로 “자신감”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지만 본인이 잘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지문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착각하여 성의 있게 읽지 않거나, 글쓴이가 처음 의도한 주제와 달리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근거하여 지문의 주제를 자신의 마음대로 선불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단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고양시키기에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큰 성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③ 추론 능력

두 번째로 추론 능력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추리소설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내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이미 읽은 내용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에 나올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내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추론 능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으로는 관찰력이 좋은 것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 그리고 순발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읽은 글의 내용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 과연 글쓴이가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하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며, 재빠르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한다.

추론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많은 글을 읽어보는 것이다. 많은 표본을 접할수록 글쓴이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서술할지, 이 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 점차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마치 많은 사건을 해결해 본 탐정일수록 새로운 사건을 마주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글을 읽을 여건이 안 된다면 글을 읽을 때 최대한 글에 몰입하여 글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글쓴이에게는 긴 글이든 짧은 글이든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입장에 몰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로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즉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읽는 내내 고민하며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물론 연습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배양되지만, 단어 능력에 비해서는 연습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승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이에 몰입하여 글쓴이의 입장을 헤아리며 읽으려는 태도이다. 한 편의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며 다양하게 추론해 보는 것 또한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결국 추론하는 능력은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능력인데, 이는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으며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할 때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이다. 글은 전반적으로 글쓰기가 글을 쓴 목적에 부합하여 전개될 것이며, 결국 주제라는 목표를 향해 수렴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④ 구성 능력

세 번째로 구성 능력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글의 각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단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에 대하여 글쓰이는 상당한 고민을 통해 현재의 구조를 결정했을 것이다. 즉,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글쓰이가 글을 쓰며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설계도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글은 단어로 시작하여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된다. 수능시험에 출제되는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예로 들어 보자면, 한 편의 글은 대체적으로 4~6개 정도(최근에는 5개의 문단인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8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난이도 높은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다)의 문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문단들은 글쓰이로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문단들 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글쓰이가 이 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적절히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문단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단도 있다. 다른 문단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의 문단도 있으며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문단도 있다. 따라서 글을 구성하는 문단들 간의 구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각 문단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문단들의

역할 구분을 통해 전체 글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문단을 중심으로 각 문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글을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입체적인 글 읽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치 평탄한 지형위에 산이 솟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글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똑같이 평평하게 보이지 않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도드라져 보인다는 뜻으로, 결국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구성 능력이 좋은 사람은 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정리할 수 있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소화하여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성능력이다. 글의 구성을 파악하면서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내가 글을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고 저렇게 썼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비판적 사고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성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구성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면서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할 때 구성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글을 얇게 읽는 것보다는 한 편의 글을 반복적으로 읽더라도 깊게 읽고 분석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지금까지 설명한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단어 능력, 추론 능력, 구성 능력은 모두 중요한 능력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읽기능력을 신장시킬 수 없으며, 세 가지의 능력이 골고루 배양될수록 글을 읽는 능력이 쑥쑥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능력간에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단어 능력-추론 능력-구성 능력의 순서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어 능력은 각각의 단어 및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비교적 가부가 명확한 문제인 것이다. 추론 능력은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것이고, 결국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 하고자 이 글을 썼는지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는 기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구성 능력은 글의 전반을 구성하는 각 문단을 비롯하여 각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는 이들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세 가지 황금열쇠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3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



③ '22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0~13번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

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은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

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목적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은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학자의 주장, 제도의 원리, 특정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하는 글에서는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해 글의 초반부에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과거의 주요한 사건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글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독자들에게 기본 개념을 명확히 알려주어 글의 흐름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했던 관련 사건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글의 경우 글 전체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기축 통화”에 관해 간략히 정의하므로 “기축 통화”가 바로 이 글의 주요 설명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부터 등장하는 학자의 주장과 이후 일련의 사건들은 “기축 통화”가 아닌 “기축 통화인 달러화”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요 설명대상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글이 시작하면서 등장한 “기축 통화”의 정의는 “기축 통화”와 “달러화”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므로 실제 현실의 특정한 통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역할에 따른 개념 정의이다. 이와 달리 “달러화”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통화이다. 이후 4번 문단 속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라는 문구를 통해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정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축 통화의 역할을 했던 여러 종류의 통화 중에서 한 종류가 달러화라고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

이 글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인 문단을 통해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4번 문단은 다른 세 개의 문단에 비해 매우 짧은 분량이다. 설명하는 글 중 이처럼 전체 분량이 그리 길지 않은 글에서 마지막에 짧은 문단이 나타난다면 이는 앞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강조하는 역할 혹은 주요 내용에 이어 간단히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의 4번 문단의 경우 “붕괴 이후에도”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붕괴까지를 다룬 3번 문단이 주요 내용이고, 4번 문단에서는 붕괴 이후의 사실을 간단히 추가하면서 글을 마무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분량이 긴 1번, 2번, 3번 문단으로 돌아가서 1번 문단부터 살펴 보면, 1번 문단은 “기축 통화”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기축 통화”의 한 종류로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주장한 학자의 지적을 언급한다. 이처럼 설명하는 글에서는 특정 학자의 주장을 등장시키고 글의 전반을 통해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해나가는 흐름을 취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독자들은 글쓴이가 이 학자의 이론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자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옳고 일부는 그른 것인지 알게 된다. 1번 문단에서는 해당 학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자가 설명한 근거를 인용을 통해 서술한다.

2번 문단에서는 독자들이 1번 문단에서 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경제환경에 관해 부연설명 하면서 글쓴이가 학자의 주장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1번 문단에서 등장한 학자의 주장, 즉 “트리핀 딜레마”를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간명하게 정리하고, “국제 유동성”의 개념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즉, 2번 문단은 1번 문단에서 등장한 “트리핀 딜레마”를 실제 “금 본위 체제”와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보완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3번 문단에서는 본격적으로 “트리핀 딜레마”가 실제로 현실에서 맞는 주장이었는지를 살펴본다. “트리핀 딜레마”는 1960년에 등장했는데, 3번 문단의 시점은 1970년대 초이다. 즉, “트리핀 딜레마”가 현실을 예측하며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모순점을 지적했고, 시간이 흘러 이와 같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서술한다. 따라서 3번 문단은 1번 문단과 2번 문단에 걸쳐 글쓴이가 설명한 “트리핀 딜레마”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문단으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리핀 딜레마”에 관한 1번 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와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데, 글쓴이는 이를 2번 문단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로 간명히 정리했으며, 3번 문단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며 “트리핀 딜레마”가 예측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트리핀 딜레마”의 예측과 실제 현실에서의 사례]



1번 문단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트리핀 딜레마”에 따를 시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든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든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고, 3번 문단에 따르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누적이 결과적으로 금 태환 정지 및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로 귀결되었다. 3번 문단에 언급된 “평가 절하” 및 “평가 절상” 등의 용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금 태환 정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관해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 1번 문단과 2번 문단에서 설명된 “트리핀 딜레마”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실제로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된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이는 “트리핀 딜레마”의 예측이 적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4번 문단에서는 이와 같이 “트리핀 딜레마”의 예측대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고정 환율 제도 또한 붕괴되었지만, 달러화의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은 계속되었다고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비록 “트리핀 딜레마”에 따른 내용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라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는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연하면서 글을 마친다.

주제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달러화”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이다. 글을 시작하면서 언급된 “기축 통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중 이 글에서는 특히 후자인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4번 문단에서도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한 외환 거래”를 언급하며 환율 결정에서의 달러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이 글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가 “환율 결정”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에 관해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바로 “트리핀 딜레마”이다. 즉, 이는 미국의 적자 상태 지속이라는 특정 조건 속에서는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리라 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리핀 딜레마”의 예측이 옳다면, 달러화는 환율 결정이라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3번 문단에 따르면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자 “트리핀 딜레마”는 실제로 현실이 되었고, 이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만약 이 글이 3번 문단을 끝으로 완결되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글의 주제는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환율 결정의 기준이라는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트리핀 딜레마”를 포함한 주제를 작성하고 싶다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트리핀 딜레마의 예측대로 달러화는 환율 결정의 기준이라는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4번 문단은 짧은 분량임에도 3번 문단까지 비교적 일관된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논지를 전환하여, 비록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글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해 환율 결정의 기준이라는 역할을 못 할 수 있었으나, 규모의 경제에 의해 여전히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제를 표현해야 한다. 4번 문단은 비록 내용은 짧지만, 3번 문단까지의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글 전체의 주제를 표현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 글의 제목을 주제 및 글의 주요 요소를 활용하여 짓는다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달러화와 트리핀 딜레마” 등의 후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번 문단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제목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달러화 위기로 인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만약 4번 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을 더욱 많이 추가한다고 하면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기와 극복”,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 지속”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트리핀 딜레마”의 예측대로 달러화가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해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에 위기를 겪었음에도 실제로는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두어 여전히 기축 통화로 통용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적절한 주제와 제목을 추출할 수 있다.

4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다양한 응용





1장

수능시험 문학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①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3~35번 (시)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밝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고고 :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쫓는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목적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비문학 분야의 글과 비교할 때 글쓴이의 집필 목적 측면에서 가장 상반된 글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시 문학이다. 비문학 분야의 글은 설명을 통한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통한 독자의 변화 촉구 등 비교적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다. 그렇지만 시 문학 분야의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 문학을 통해서도 정보를 전달하거나 독자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함축적인 표현과 비유적인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시에서는 정확한 정보나 정교한 논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가)와 (나) 모두 시 문학 분야의 글이다. 수능시험에 출제되는 시 문학을 시대의 구분에 따라 크게 고대시와 현대시로 나누는데, 이 두 편의 시는 모두 현대시에 포함된다. 현대시에 포함되는 모든 시가 동일한 목적으로 집필되지는 않았겠으나, (가)와 (나) 시의 글쓴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를 지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글에서는 마지막 연에서 “슬픈”, “곡성” 등 시 속의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며, 첫 부분에서도 까마귀와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나) 글은 마치 그림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시인데, 이와 같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시인이 해당 장면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장면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이 곳곳에 담겨있다.

(가)와 (나)가 모두 글쓴이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글쓴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비문학 글을 읽는 방법을 적용하여 시 문학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 시간적 배경 및 공간적 배경 등 작품 외적인 정보나 시에 등장한 생소한 단어에 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전제하에, 마치 시험장에서 이 시들을 처음 본 것과 같은 기분으로 지문을 읽어야 한다. 순전히 지문에 나타난 단어 들만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을 유추한다면, 우선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감정은 “슬픈”, “곡성”이라는 단어 및 까마귀와 부엉이의 울음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일 것이다. (나)에 나타난 글쓴이의 감정은 글쓴이가 묘사한 장면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글쓴이는 삼월

에 눈이 내리는 마을을 묘사하며, “열매”, “올리브빛”, “아름다운 불” 등의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단어들이므로 글쓴이가 묘사하고자 하는 장면을 통해 비교적 기쁘고 아름다운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문학 분야의 글은 실용적인 목적의 비문학 분야 글에 비해 글쓴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쓴이의 감정을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비문학 글이 애초부터 목적을 드러내놓고 독자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비하여 문학 분야의 글은 글쓴이의 감정이 숨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 경우에는 표현이 함축적이고 분량이 짧기 때문에 글쓴이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글을 쓴 목적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비문학 글에서처럼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찾으려 하기보다는,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기쁨인지 슬픔인지 등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때로는 시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감정이 너무도 격렬하거나 반대로 너무도 담담하여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도저히 단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마저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어진 조건하에서 글쓴이의 감정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조

먼저 (가)와 (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가)는 총 4개의 연으

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1개의 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비문학 글을 설명하면서 각 문단은 글쓴이의 생각의 단위라고 설명하였다. 시 문학에서는 글쓴이가 연을 바꾸는 것이 비문학의 문단을 바꾸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 문학에서 연을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생각의 단위가 바뀌는 것을 넘어 일종의 표현기법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쓰임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문학에서 각 연은 분명 시각적 측면이나 형태 측면에서 앞뒤의 내용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총 4연 중 1연에서는 아직 화자 또는 화자와 관련된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배경이 표현되어 있다. 이후에 2연~4연까지는 화자의 가족 및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출생기(出生記)」라는 제목에 걸맞게 마지막 4연에서는 화자의 탄생이 묘사되고 있다. 이때 배경을 다룬 1연에서 “용희(隆熙) 2년!”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이 글의 배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문학 글을 제한시간 내에 읽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글의 구조를 파악해왔고, 이때 글을 읽었던 방법을 시 문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이 단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독자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학 작품 중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들도 있을 수 있고, 작품을 안다고 하여도 세세한 단어들의 뜻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글을 마주한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1연에서 주로 등장하는 “검정”, “까마귀 울음소리”, “부엉이”, “괴괴히 울어”,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에서 주는 이미지는 뚜렷하게 어둡고 부정

적인 것이다. 따라서 1연을 통해 화자는 어두운 배경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어두운 배경이 2연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연에서는 1연에서 어두웠던 이미지가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 화자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소개하며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진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는 “제삿밥”,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형상화 되고, 4연에 이르러서는 “슬픈 제 족속의 태반”, “고고의 곡성” 등 슬픔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이 글은 화자의 탄생을 표현한 것인데, 화자의 탄생은 슬픔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는 1연에서 드러난 배경과 관계가 깊다. 1연에서 드러난 배경은 2연에서 화자의 부모님이 등장하며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제삿밥”, “사대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배경하에서 화자의 탄생은 결국 슬픈 감정으로 묘사된다.

(나)의 경우에는 1개의 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총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는 문장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글을 띄어 읽게 된다. (나)의 경우에는 (가)에서와 같이 글이 갖는 이야기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얽으면서 특정한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영화나 그림의 한 장면을 묘사하며 화자의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첫 문장은 “샤갈의 마을”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나이”가 등장한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네 번째 문장에서는 눈이 내리는 마을에서 “열매”와 “아궁이”로 표현되는 따뜻한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나)의 이미지 구조]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주요 이미지	샤갈의 마을 삼월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관자놀이 정맥	눈 지붕과 굴뚝 뒤덮음	한겨울 열매 올리브빛 아궁이
역할	마을 소개	사나이의 등장	눈이 내리기 시작	마을의 따뜻한 이미지 형상화

(나)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나이가 등장한 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마을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맥”, “바르르 떠다” 등으로 묘사되는 사나이조차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라는 것이다. 즉, 이 글은 눈 내리는 마을의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차가워 보이는 사나이조차도 사실은 따뜻한 봄을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비문학 글을 읽는 방법을 시 문학에도 적용한다면, 독자는 “융희(隆熙) 2년!”, “번문옥례”, “샤갈의 마을” 등 생소한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충분히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비문학 글을 읽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비문학 글은 비교적 문장이 평이하고 의미가 명확한 것에 비하여 시 문학은 표현기법이 다양하고 함축적인 뜻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등장한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나 이미지에 집중하면서 이를 단순화하여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화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으로 대비시키며 글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으로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독자들이 시 문학을 대하면서 글쓴이의 독특한 표현방식이나 가치관으로 인

해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물론 배경지식이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은 맞지만, 배경지식이 없다고 해서 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치 비문학을 읽는 것처럼 연과 연,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의 구조를 파악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비문학 글은 글쓴이가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주제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목적을 달성하기 쉽다. 반면 시 문학의 경우에는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숨기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제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문학의 글쓴이 역시 독자들을 상정하고 글을 썼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것이다. 시 문학의 주제를 찾을 때에도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은 비문학 글과 동일하지만, 시 문학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글쓴이가 묘사하고자 하는 장면, 글쓴이의 상황, 글쓴이가 전개하는 줄거리 등에 집중하여 마치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을 상상하듯이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제는 결국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응축한 것이라고 했다. 실용적인 비문학 글에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설득하

고자 하는 주장이 바로 그러한 주제이다. 그러나 시 문학에서는 글쓰기가 현재 품고 있는 감정,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묘사하고자 하는 장면 등이 모두 주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시의 배경이 되는 시대나 시인의 인식사항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면 이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운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주제를 파악할 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통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완전히 생소한 시를 보게 되더라도 시의 주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완벽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도출하려 하기보다는, 화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나마 유추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문학 글에 비해서 추상적이며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은 주제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소한 글쓰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어떤 방향인지, 글쓰기가 묘사하려는 장면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가)에서는 “검정”, “까마귀 울음소리”, “부엉이”, “어둔 바람”으로 표현되는 배경속에서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고고의 곡성”으로 비유되는 화자의 출생이 나타나있다. 따라서 어두운 배경속에서 출생한 화자의 슬픔을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란 이름 지었다오”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명(命)이나”라고 표현한 점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 지배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눈이 내리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바르르 떠는 사나이”

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나이의 “정맥을 어루만지며” 내리는 눈이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고 올리브 빛으로 물들이며, 아낙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된다. 이 글에서 “눈”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차갑지만, 사나이의 정맥을 어루만지고 마을을 덮는 장면에서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눈이 내리는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수능시험에서 비문학 지문의 제목은 명시되지 않는 반면 시 문학과 같은 문학 지문의 제목은 글쓴이와 함께 명시된다. 글쓴이와 제목이 명시된다는 점은 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만약 글쓴이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의 「출생기(出生記)」라는 제목은 이 글이 화자 또는 누군가의 출생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게 해주며, (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제목을 통해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풍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제목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학 작품의 제목은 글쓴이가 오랜 기간 고심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의 정수(精髓)라고 볼 수 있는 제목을 통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문학과 대척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시 문학의 경우에도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와 같은 주제를 찾는 방법은 비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시 안에서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와 같은 시어가 주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묶어낸다면 결국 주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에 주눅 들기보다는 비문학 글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과 흐름을 통해 파악한 글의 구조에 집중한다면 시문학의 주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②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0~32번 (소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길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없이 널름 집어 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쬐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도 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